

動向分析

經濟一般

◆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1999년 10.7% 성장률 기록

1998년 3/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의 급속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9년 경제성장률은 10.7%를 기록하였다. 성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소비보다는 설비투자 및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등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공업과 중소제조업의 생산증가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기회복이 일부 업종 내지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1998	1999. 4/4	1999
경제성장률	-6.7	13.0	10.7
민간소비	-11.4	12.1	10.3
설비투자	-38.8	55.1	38.0
건설투자	-10.1	-10.2	-10.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0. 3.

1999년 산업생산은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 22.5%를 기록하였고, 재고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1997년 말 이후 수요가 급감하자 각 기업들이 생산과 수입을 줄이면서 국내외 수요를 재고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급감하였던 재고는 1999년 2/4분기 이후 출하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고 감소율이 둔화되거나 재고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다.

〈표 2〉 산업생산, 출하 및 재고 증가율

(단위: %)

	1998. 4/4	1998	1999. 4/4	1999
산업생산	-1.6	-7.3	27.2	22.5
경공업	-14.4	-16.0	15.6	9.2
중화학공업	2.4	-4.8	30.8	26.9
출 하	-2.2	-7.1	30.1	24.3
내 수	-18.5	-23.0	24.8	20.0
수 출	30.2	28.5	36.9	29.9
재 고	-17.3	-17.3	1.9	1.9
물 가				
소비자물가	6.8	7.5	1.3	0.8
생산자물가	8.6	12.2	0.5	-2.1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000. 1.

◆ 물가는 매우 안정적

두자리 수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를 기록하였고, 1999년 전체로 0.8%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는 급속한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면에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초과수요압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원화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인건비, 금융비용 등 여타 생산비용도 경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

생산자물가도 1999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였고, 1999년 전체로는 -2.1%를 기록하였다. 생산자물가의 감소는 태풍피해 등으로 농림수산물(10.1%)이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도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보였으나 환율 하락에 힘입어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임금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공산품(-3.3%)과 서비스료(-2.1%)가 내린 데 주로 기인한다

◆ 경상수지는 흑자 ; 전년에 비해서 흑자규모는 축소

1999년 경상수지는 25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수지는 5.8억달러의 유입초과를 나타내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주도의 수출

1) 한국은행, 『2000년 물가안정목표』, 2000. 1 참조.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287.2억달러 흑자)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흑자규모는 축소되었다(1998년에는 405.6억달러로 155.6억달러 축소).

자본수지는 IMF 차입금 조기상환 및 만기도래 외화채권의 상환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자금 유입규모가 대폭 확대된 데다 국내기업의 대규모 해외DR 발행 등으로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표 3〉 국제수지

(단위: 억달러)

	1997	1998	1999 ^p
경상수지	-81.7	405.6	250.0
상품수지	-31.8	416.3	287.2
서비스수지	-32.0	6.3	-10.1
소득수지	-24.5	-50.5	-46.6
경상이전수지	6.7	33.5	19.5
자본수지	13.1	-32.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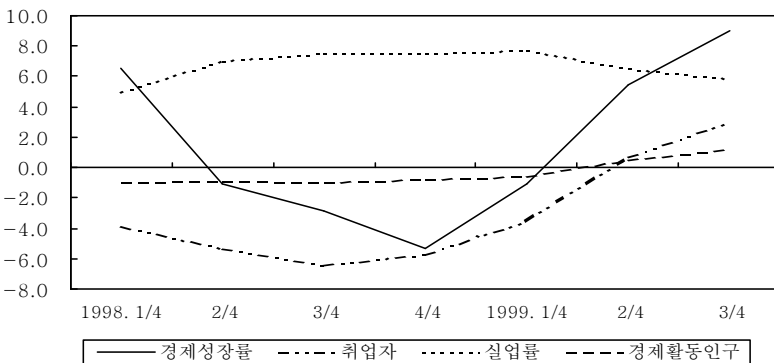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1999년 국제수지 동향』, 2000. 2.

◆ 경기회복으로 경기동행적인 고용사정 개선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추세는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 고용변수들이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등은 경기순응적이며, 실업자는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고용변수



주 : 1999년 경제성장률은 잠정치임.

고용변수들과 GDP가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 고용변수들의 시차와 GDP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업자와 취업자는 당기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각각 0.889, 0.822로 매우 크고 미래시차가 과거 시차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에 동행하지만 경기변동 이후 2분기 정도까지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²⁾ 따라서 최근의 경기호조는 적어도 2000년 상반기까지 고용사정에 영향을 미쳐 고용지표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고용변수의 경기동행성(1985.1/4~1999.3/4)

	-3분기	-2분기	-1분기	당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G D P	0.185	0.447	0.756	1.000	0.756	0.447	0.185
경제활동인구	0.089	0.245	0.401	0.571	0.535	0.504	0.364
취업자	0.070	0.305	0.581	0.822	0.781	0.629	0.370
실업자	-0.170	-0.416	-0.693	-0.889	-0.810	-0.566	-0.275

주 : 경기동행성은 시차 k에서 GDP와의 상관계수임.

자료 : 한국은행, 『경기순환에 대한 고용의 반응과 최근의 고용회복』, 1999.

2) 한국은행, 『경기순환에 대한 고용의 반응과 최근의 고용회복』, 1999. 참조.